

## 본질 VII.

###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현실을 말하고 있는가?

#### 1.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NIV)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다. 능력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아주 간단하다. ‘십자가’이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 영어로 보니 ‘메세지’이다. 십자가는 보여지는 상징이며,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 안에 있는 메시지, 즉 의미라는 것이다.

원어로 보면 ‘로고스’ 라는 뜻이다. 헬라어 로고스의 정의는 내적인 생각이나 사상으로 외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 또는 내적인 사상 그 자체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사상이 바깥으로 표현되어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로고스이며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동일한 논리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 재창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생각, 이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어 말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도의 참된 의미이다. 여기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그 속생각과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심볼이고, 십자가의 도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을 외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그 자체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도에 기초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능력’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것이다.

#### 2. 세상의 능력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의 구분을 보여준다. 성도안에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의 핵심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에 집중을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능력’이요, 자기자신의 능력’이다. 오늘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한다.

[고린도전서 1: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은 어떠한가? ‘~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일까? 그 이유는 명확하다. 이 세상에 형성된 ‘능력’의 가치들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풍조가 만들어 놓은 ‘능력’의 가치가 이미 정의되어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능력이란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영향력이 극대화 된 단계를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능력이라 말한다. 돈, 권력, 학벌, 지식 가문, 스펙, 배경 등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세상이 주목을 한다. 그래서 세상은 화려함, 정상의 자리 등 세상의 이목과 집중을 받는 자리에 관심이 있다. 문제는 '능력'에 대한 세상의 영향력들이 성도와, 교회의 생각과 사고, 가치관에 침투되어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 복음이 세상의 가치와 '희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의 눈 앞에 서있게 된다. 즉, 시선과 관심의 이동이 나타난다. 교회에서도 '능력'을 세상의 능력과 구분하지 않는다. 바로 이 시점이 '교회'가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때이며, 그 때부터 변질과 타락이 일어난다.

### 3. 두 명의 사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다. 한 명은 구약의 사울이고, 다른 한 명은 신약의 사울이다. 사울의 변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 되는가? 왕이 내려야할 모든 결정을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부터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사울은 변질되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다.

[사무엘상 15:2-3]

2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3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키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 떼와 양 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무엘상 15:9]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 떼와 소 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사무엘상 15:20-21]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21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 떼와 소 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다. 전멸시키라는 것이었다(2절).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의 악행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하지 않는다. 좋은 것들은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았다고 말한다(9절).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런 사울왕의 행동을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20절).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왕 아각도 잡았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사울왕이 말하는 '순종'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21절에 '다만'으로 표현된다.

'다만' 내가 모두를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주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울왕의 합리적이고 이유있는 행동에 대하여 사무엘은 말한다. 사무엘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고 말한다.

[사무엘상 15:22]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신약의 사울은 이런 구약의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었다. 가문, 지식, 문벌 등 그 당시 능력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울이었다. 이런 능력있는 사울의 세계관을 흔들어 버린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자기와 비교도 되지 않는 촌구석 목수의 신분인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능력을 풀어내셨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자도 고쳐지고, 소망없던 자들이 소망을 갖게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진짜 변화를 보이셨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이런 능력은 실제로 그 당시 위협적 세력이 되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이 아닌 세상능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자신의 이성, 세상의 분석, 판단 등 모든 것이 보충되어야 안정감이 있는 것이다.

#### 4. 보이는 현실세계를 바라보는 눈

사울의 이유있고 논리있는 변명중에 주목할 단어가 있다. '다만'이라는 말이다. 사울의 논리를 풀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그 말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해석하는 현실은 좀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떠난, 능력없는 사울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다. 내가 살고있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불안과 불신이다.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복음의 능력이 안타깝게 인간의 능력안에 갇혀 있다. 인간의 합리적 논리, 구조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복음만을 말하면 무엇인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이 현실을 분석하고, 쪼개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세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복음 말고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는 다른 것이 많기 때문이다.

#### 5.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릇

[고린도전서 1:26-30]

26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한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27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8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9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 **26절** - 육신의 기준에 부합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 권력,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이 안에 많지 않다) 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는지 분명히 그 이유가 나타난다.

\* **27절** -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하신다고 이유가 나와있다.

\* 28절 - 세상의 비천한 자들, 멸시받은 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제하기 위해 택하셨다고 그 이유를 밝히신다.

\* 29절 -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하기 위해서이다.

무슨 말인가? 결국 십자가의 '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바벨탑의 뿌리가 된 인간의 '죄성'이다. 이 모든 죄가 해결되는 길은 오직 한 곳 '십자가' 뿐이다.

**1)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자유로워 진다.**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능력의 기준에 나를 더 이상 비추지 않기 때문이다.

**2)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는 분별을 말한다.(솔로몬) 분별이란 힘을 쏟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삶에 낭비가 없고 손해가 없다. 지혜는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눈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에 쫓기거나 그로인한 분주한 삶에서 나올 수 있다.

**3)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삶이 명료해지며 선명해진다.**

불투명하고 불안한 삶이 아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인된 불투명한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다. 분명하다.

**4)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될 때, 어두움의 제약인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임한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다. 모든 것이 사탄의 속임이다. 어두움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십자가 위에서 처리되었고, 무력화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선포된 곳에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6.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고 선포하라.**

십자가가 본질이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 곳은 십자가 말고 없다.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력화 되었다. 십자가는 실제로 죽음의 진이 파괴된 장소이다. 우리의 모든 질병, 저주, 죄악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곳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해야 한다. '십자가의 도' 말고 아무것도 보충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본질이다. 십자가가 선포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부의 문이 닫힌다.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과 비밀을 알아야 할 때이다. 이제 그 능력의 문을 열어야 한다.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열쇠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라. 이제 기도하자.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명쾌하게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자. 다른 어떤 것도 부수적이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은 도구가 된다. 명심하자. 십자가가 본질이다.